

Sermon 67

Scripture: Mark 14:43-52

Date preached: December 17th 2023

43 And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Judas, one of the twelve, with a great multitude with swords and clubs, came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elders. 44 Now His betrayer had given them a signal, saying, “Whomever I kiss, He is the One; seize Him and lead *Him* away safely.”

48 Then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Have you come out, as against a robber, with swords and clubs to take Me? 49 I was daily with you in the temple teaching, and you did not seize Me. Bu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51 Now a certain young man followed Him, having a linen cloth thrown around *his* naked body. And the young men laid hold of him, 52 and he left the linen cloth and fled from them naked.

51 그리고 한 청년은 베 홀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히자 52 두른 것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Before we time our attention to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take a few moments to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It's the Thursday evening of Passion Week. We pick up the action following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It was during this very special, and highly symbolic meal that the Lord Jesus instituted the Lord's Supper. After the meal they all sang a hymn and then left the upper room to walk to the garden of Gethsemane. It is as they are on this journey that Jesus tells the disciples that soon because of what will happen to Him they will all flee.

The Lord Jesus knows exactly what will happen. It is actually a fulfilment of Old Testament prophecy that this will occur. Jesus quotes from the prophet Zechariah (13:7). This verse speaks of how after the shepherd has been struck the sheep will scatter. Such news shocks and surprises the disciples. Naturally they do not think of themselves as fearful cowards. Most of the disciples had

been strong working men. We sometimes have the wrong impression of what Jesus and the disciples were really like. Part of this comes I think from the way they are frequently portrayed in movies and TV shows. We mistakenly think of "gentle Jesus meek and mild" as being weak and not manly. That's a big mistake. Jesus and the disciples were not in any way weak or effeminate. Those who had been fishermen for example were used to many hours of hard, strength sapping labour. This included lifting and pulling heavy objects such as nets full of fish and rowing boats. The Lord Jesus trained and worked as a carpenter. He too was comfortable lifting heavy weights and constructing things out of wood and stone. These men would have been strong and powerful. So please forever banish from your minds the idea that they were long haired girly men.

So when Jesus tells them that they will all fall away or stumble they are taken aback. Peter is especially affronted. He tells Jesu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he will not stumble or fall away. The Lord Jesus assures him that before that night is over he will deny Him three times. He also tells them that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He will meet them again in Galilee.

The action then moves on to their arrival at the garden of Gethsemane. This area famed for its olive trees and olive press was located on the lower slopes of the Mount of Olives. It was a favorite place for Jesus and the disciples. It would have been a nice quiet place in which to talk, pray and spend time together.

Once they arrive the Lord Jesus takes Peter, James and John and goes off into the garden in order to pray. He is deeply distressed as He feels the great burden of what He will shortly endure pressing down upon Him. Certainly the physical torment and pain factored into His distress. But more significantly the spiritual component inherent in the cross weighed upon Him. In taking on our sin He would temporarily be separated from God the Father. This made our saviour deeply sorrowful.

His prayer to God the Father was that the burden of the cross be removed from Him. He prayed that the "cup of suffering" if possible be taken from His hands. But, and this is most important as He prayed He affirmed that God's will be done. He was willing at all times to submit to the will of the Father. When He returned to Peter, James and John He found them sleeping. He had asked that they keep watch. What sadness this must have caused our Lord. In His hour of greatest need He discovered that His closest friends were of no comfort or support to Him. This pattern is repeated on a further two occasions.

The episode ends with Jesus declaring that the time for quiet prayer and sleeping is over. In the distance He can see Judas and the men who will arrest Him. This will be the subject of our sermon today.

오늘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난 주간 목요일 저녁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한 후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모두 찬송을 부른 다음 다락방을 떠나 겔세미네 동산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장차 그에게 일어날 일 때문에 곧 제자들 모두가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13:7)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목자가 패한 후에 양들이 어떻게 흩어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은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놀라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을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힘든 일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 지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받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묘사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온화하신 예수”를 악하고 남자답지 않은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것

은 큰 살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코 악하거나 나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부였던 사람들은 여러 시간 동안 힘들고 자치게 하는 노동에 익숙했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이나 노 젓는 배와 같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당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묵수로서 단련되고 알하셨습니다. 그분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무와 돌로 물건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하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장발의 여성스러운 남자들이었다는 생각을 당신들의 마음에서 떨쳐버리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가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합니다. 올리브나무와 올리브 압착기로 유명한 이 지역은 감람산의 낮은 경사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조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주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곧 견뎌야 할 일이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을 느끼실 때 몹시 괴로워하십니다. 확실히 육체적인 고통이 그분의 괴로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내재된 영적인 요소가 그분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분은 일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세주를 몹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십자가의 짐을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능하다면 “고난의 잔”을 그분의 손에서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가까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돌아 오셨을 때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깨어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에게 위로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간하셨습니다. 이 패턴은 두 번 더 반복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예수께서 조용한 기도와 잠자는 시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분은 멀리서 다가오는 유다와 그분을 체포할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43 And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Judas, one of the twelve, with a great multitude with swords and clubs, came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elders.

The peace and quiet of the garden setting is about to be shattered. Whilst Jesus is speaking they see Judas and the large group he is heading approaching. How big exactly was this group of men? Mark tells us it was a **multitude**. This is the word *ochlos* in the Greek. It refers to a throng, mob or a disorganised crowd. That's not particularly helpful. If I said there was a crowd of people at the bus stop that could be any number from 10 to 50!

John however in his gospel describes this group accompanying Judas as a *speria*. This is actually a technical, military word to refer to a cohort. A cohort was a 10th part of a legion and comprised around 600 men. However the size of a cohort varied throughout history. At some points in time a cohort comprised only 420 men. So although we cannot say with absolute certainty how many men accompanied Judas it was a sizeable group. A small army perhaps numbering between 400 and 700 men. Why was such a large group of armed men deemed necessary? Well clearly they have the wrong idea about Jesus. Either they assume that upon their arrival he will attempt to flee, or more likely that His band of “revolutionaries” will put up a fight. Therefore this “small army” was ready and prepared for action.

Who exactly made up this group? Mark tells us they came from the chief priests, the scribes and the elders. This suggests that this was an official contingent of men representing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They also brought with them a number of Levitical temple police. Their normal job was to keep order or peace within the temple precincts. It was these men that carried the clubs. The clubs they used were similar to the “night-sticks” or truncheons used by police officers today. They were effective for controlling the crowds and “gently prodding” people into doing what they were told.

John also tells us that among this group were a contingent of Roman soldiers (John 18:3, 12). They were the ones carrying the swords. The swords they carried (*machaira*) measured between 40-50 cm in length, were made of steel and were double-edged. In the hands of these highly trained men they were a formidable and deadly weapon. No doubt the Roman soldiers were sent to maintain the peace and ensure that a riot didn't break out.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43 예수님의 말씀이 마쳐 ㄹ ㄹ ㄹ ㄹ 전에 열 두 제자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다

동산의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곧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그들은 유다와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이 그룹의 규모는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마크는 그것이 **다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오클로스*(*ochlos*)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군중, 폭도 또는 무질서한 군중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그들이 몇 명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많다고 하면 10 명부터 50 명까지 어떤 숫자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유다와 동행하는 이 그룹을 *speria* 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코호트(*cohort*)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군대 용어입니다. 코호트는 군단의 10 번째 부분으로 약 600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의 규모는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부대가 단지 420 명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동행했는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상당한 규모의 그룹이었습니다. 아마도 400 명에서 700 명 사이의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장한 무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의 "혁명가" 제자들 무리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가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규모 군대"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정확히 누구로 구성되었나요? 마크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 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공식 파견대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또한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전 경비병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의 일반적인 임무는 성전 경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곤봉은 오늘날 경찰관이 사용하는 "야간봉", 즉 곤봉과 유사했습니다. 그것들은 군중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지시를 따르도록 "부드럽게 재촉"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요한은 또한 이 무리 중에 로마 군인 부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요한복음 18:3, 12). 칼을 든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검(*machaira*)은 길이가 40~50cm 정도로 철로 만들어졌고 양날이 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이들의 손에서 그것들은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로마 군인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44 Now His betrayer had given them a signal, saying, “Whomever I kiss, He is the One; seize Him and lead Him away safely.” 45 As soon as he had come, immediately he went up to Him and said to Him, “Rabbi, Rabbi!” and kissed Him.

Judas had devised a way of indicating who Jesus was to those who would arrest Him. The Lord Jesus was of course a well known public figure. People would know Him by sight. But we should remember that it is night. Even if the moon was bright they are in a gloomy place beneath the olive trees. So Judas will clearly identify Jesus and avoid any confusion by kissing Him.

Cultures around the world vary when it comes to greetings. In Korea a respectful bow is appropriate. In some places it is customary to greet people with kisses on the cheek or air kisses. In other places a hug is a common way to greet people. In other places still a simple shake of the hands suffices. In the first century it was common to greet a rabbi with a kiss. It was regarded as a sign of respect and affection for a well loved (admired) teacher. So normally a kiss was an intimate act of expressing brotherly love.

Let us think for a moment about the act of kissing here in Korea. Who do you kiss? Korea is a conservative place. Generally speaking the only people Koreans kiss are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Husbands kiss their wives and parents kiss their children. My point is this. To kiss someone is a very special and intimate thing.

But here in Judas' terrible betrayal the kiss takes on the form of something hideous and dreadful.

There are a couple of very interesting things going on here which are easy to overlook. The first regards the Greek words used for kiss. When Judas tells them, “**Whomever I kiss**” Mark is using the common word *phileo*. You may recognise this word as the word used to describe brotherly love or affection between friends. But here's what's interesting, and easy to miss. When Judas actually kisses Jesus Mark uses another word. This time he uses the word *kataphileō*.

This word is used to describe how lovers or intimates kiss one another. It means to kiss or love with fervency and passion. This means that the sign of the betrayal was not a mere formal kiss of respectful greeting. It was a lavish lover's kiss. Judas is really laying his faux affection on thickly. He wants there to be no doubt regarding Jesus's identity.

The second interesting thing is the way Judas addresses Jesus. It's not unusual or surprising that Judas addresses Jesus as rabbi or teacher. It was a title used of respected teachers who trained disciples in the first century. Here however it is used with great irony. You see whilst Judas is acknowledging Jesus as his teacher and master at the same moment he is betraying Him to his enemies.

What is also noteworthy is that he repeats the title. This is a very unusual and significant Hebraic gesture that we find on a number of occasions throughout scripture. I am referring to the custom of addressing someone by the repetition of their name.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In the Old Testament when Jacob was fearful about going into the land of Goshen we read the following;

God spoke to him saying, Then God spoke to Israel in the visions of the night, and said, “Jacob, Jacob!” (Gen 46:2)

Even earlier in the Old Testament record was that very poignant moment on Mount Moriah when Abraham laid his son Isaac on the altar, and at the last second God interrupted him;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to him from heaven and said, “Abraham, Abraham!” (Gen 22:11)

Arguably the most dramatic use of such a repetition came from the very cross itself and from the lips of our Lord and saviour.

And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a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Luke 27:46)

I hope you can see what's going on here. Every time this repetitious form of person I address is used it communicates an intense and profound sense of personal affection. It's employed to convey a deep sense of connection and attachment. Here's what's shocking. This is the way that Judas betrayed our Lord. Not in a matter of fact way, not in a it's nothing personal it's just business kind of way. Instead, he did it in a loving intimate and very personal way. Let us find out what happens

next.

44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단단히 붙잡아 가시오” 하고 마리 임호를 짜 둔 후 45 곧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려는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줄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잘 알려진 공인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입니다. 달이 밝더라도 그들은 감람나무 아래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분명히 식별하고 그분께 입을 맞춤으로써 혼란을 피할 것입니다.

인사에 관한 전 세계의 문화는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볼에 입을 맞추거나 허공에 입맞춤하는 방식으로 인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포옹이 일반적인 인사 방법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간단한 악수만으로 충분합니다. 1 세기에는 랍비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사랑받는(존경받는) 선생님께 대한 존경과 애정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키스는 형제애를 표현하는 친밀한 행위였습니다.

여기 한국에서의 키스 행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키스하나요? 한국은 보수적인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키스하는 유일한 사람은 작게 가족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키스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키스합니다. 제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키스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친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다의 끔찍한 배신에서 그의 입맞춤은 잔인하고 소름끼칩니다.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스에 사용되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유다가 “Whomever I kiss □ □ **입맞추는 자**”라고 말할 때 마가는 필레오(*phileo*)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형제애나 친구 간의 애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롭지만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실제로 예수에게 입을 맞추었을 때 마가는 카타필레오(*kataphileo*)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연인이나 친밀한 사람들이 하는 키스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열렬하고 열정적으로 키스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신의 표시가 단순히 공손한 인사의 입맞춤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열렬한 키스였습니다. 유다는 그의 가짜 애정을 과장스럽게 포장하여 표현합니다. 그는 누가 예수님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행동합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예수를 랍비(*rabbi*)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 세기에 제자들을 훈련시킨 존경받는 교사들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이자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적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만한 점은 칭호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 여러 경우에서 발견되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유대인적인 제스처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관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아굽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 자라라 (창 46:2)

그보다 더 이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 놓았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 22:11)

틀림없이 그러한 반복의 가장 극적인 사용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자 구원자의 입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구사뵈에 예수께서 궤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사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이 본문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반복하여 사람을 부르는 것은 강렬하고 심오한 개인적인 애정을 전달합니다. 깊은 연결감과 애착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우리 주님을 배반한 방식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단지 비즈니스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유다는 애정넘치고 친밀한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배반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46 Then they laid their hands on Him and took Him.

At Judas's signal Jesus is physically restrained and bound with ropes (John 18:12). Throughout Jesus ministry He had laid His hands upon people to cure and comfort them. Here though the laying on of hands is a hostile and aggressive act.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took” is the word *krateo*. It means to “have power over,” or “to become master of.” So at this moment in time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had power” over the Lord Jesus. However in reading these words we should never forget where the real power and control lay. These Roman soldiers and temple police were not in control. Jesus was. He willingly submitted Himself to this and allowed them to have power over Him.

Let us read on.

46 그러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유다의 신호에 예수님은 붙잡히고 밧줄로 묶였습니다(요한복음 18:12).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 그분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해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몸에 닿은 손들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붙잡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라테오(*krateo*)입니다. '힘으로 통제하다', '주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 예수님을 “통제하였” 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힘과 통제력이 어디에 있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 군인들과 상전 경찰들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까이 이 순간에 순복하셨고 그들이 그분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7 And one of those who stood by drew his sword and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and cut off his ear.

At the moment of Jesus arrest one of those with him drew a sword and struck at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ompletely severing his ear. It was not unusual for men to carry swords or knives. In fact many carried swords during the major festivals for protection. We also know from Luke's gospel (Luke 22:36) that Jesus encouraged the disciples to buy and carry swords. For self protection we must add, not in order to attack others. Christianity is nothing like Islam that advances at the point of a sword.

Mark does not mention by name either who slashed with the sword or the unfortunate individual who lost an ear. Fortunately John does name these people. Can you guess which disciples drew their sword and slashed away? It was of course impulsive and impetuous Peter. Peter was a fisherman by trade which thankfully meant his aim was slightly off. He had been aiming for the man's head! The man who lost his ear was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aiaphas) a man named Malchus. Poor Malchus how would he be able to wear his reading glasses! Fear not. Jesus touched his ear and

healed him.

But Jesus answered and said, “Permit even this.” And He touched his ear and healed him. (Luke 22:51)

What's interesting to think about is why Peter would do such a reckless thing. I explained to you before about the small army of men who followed Judas to the garden. Had he killed the man as intended then he'd likely have been killed himself, or else arrested and later killed. So what on earth was Peter thinking? Well, maybe he was thinking back to just a short while before when Jesus had said that all the disciples would abandon Him. Was Peter determined to show that he was indeed bold and courageous. Did Peter do what he did because he had something to prove? This may be the case. But I think there is a more compelling reason for his act. It's not mentioned in Mark but it does appear in John. Let me read the appropriate passage for you.

4 Jesus therefore, knowing all things that would come upon Him, went forward and said to them, “Whom are you seeking?” 5 They answered Him, “Jesus of Nazareth.”

Jesus said to them, “I am *He*.” And Judas, who betrayed Him, also stood with them. 6 Now when He said to them, “I am *He*,” they drew back and fell to the ground.

7 Then He asked them again, “Whom are you seeking?” And they said, “Jesus of Nazareth.” (John 18:4-7)

When Jesus speaks here He tells them that He is God. He is the great “I AM.” At the utterance of this phrase this small army all collapse to the ground. So who at this point can blame Peter for feeling emboldened. He thinks that he can freely wade in with his sword knowing that Jesus can at any moment utter a word and have this army collapse.

The Lord Jesus of course did not want this kind of confrontation with His enemies. He was a man of peace, and it was not God's will that He resist arrest. I will talk more on this issue in my closing. Let us read on.

47 그때 예수님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함께 있던 이들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잘랐습니다. 남자들이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요 절기 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누가복음 22:36)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사서 휴대하라고 권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칼로 전전하는 이슬람과 전혀 다릅니다.

마가는 칼로 벤 사람이나 귀를 잃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요한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어떤 제자가 칼을 뽑아 베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물론 충동적이고 성급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상 어부였기에 그의 목표가 약간 빗나갔습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그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귀를 잃은 사람은 대제사장(가아바)의 종 말고 Malchus 였습니다. 아, 이제 이 불쌍한 말고는 어떻게 돌보기 안경을 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만져 낮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조차 허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귀를 만져 낮게 해주셨다 (누가복음 22:51)

흥미로운 점은 베드로가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했는지입니다. 유다를 따라 동산으로 갔던 소규모 군대에 대해 앞서 설

명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체포되어 나중에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는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일을 회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참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임을 보여 주기로 결심했을까요? 베드로는 증명하기 위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적합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4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라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 □ 그나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6 그분께서 그들에게 “□ □ 그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다. 7 그리고 그분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8:4-7)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위대한 “I AM”입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군인들은 모두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대답해줬다고 누가 비난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이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칼을 들고 대답하게 뛰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그의 적들과 이런 대결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사람이었고 체포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8 Then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Have you come out, as against a robber, with swords and clubs to take Me? 49 I was daily with you in the temple teaching, and you did not seize Me. Bu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I am sure you have seen or read in the news recently the difficulties the Israeli army has had capturing Hamas terrorists. This is because all terrorist groups by nature are crafty and secretive. Their activities must be unobserved and secret. So they make their plans and hide out in hidden bunkers and tunnels in Hamas' case under schools and hospitals. These people are thoroughly wicked but not stupid.

Our Lord and saviour by comparison was not leading a clandestine terror organisation. They were not meeting in secret places to plot the overthrow of the Romans. The Lord Jesus was open and obvious. He preached and taught openly in the temple precincts. The fact that this small army made up of temple guards, Roman soldiers, and assorted bystanders appears in the garden reveals that the authorities are treating Jesus like an armed robber or resistance fighter.

Jesus here denies that there is any truth in this. He was not hiding or being secretive. Everyone knew where He was. At any time they could have come and arrested Him. He would not have fought or resisted arrest. There was no need to come in the manner they did, with a large army and at night. But He adds these things all must take place as the scriptures foretold.

The Scriptures that Jesus is most likely referring to here include a few passages from the Old Testament. What most readily comes to mind are the passages detailing the “Suffering Servant” in Isaiah (Chapter 53). This chapter prophetically covers Jesus' rejection, sorrow, grief, and affliction. It mentions how He was pierced with the nails on the cross and abandoned by those who should follow Him. It likens Him to the Passover lamb and prophesies His silence before King Herod. It

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마도 우리도 똑같이 도망칠 것입니다.

몇몇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적어도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슬프게도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 옆에 서서 “내 목숨을 이 분께 바쳤다. 그분을 추궁하는 대로 나 또한 추궁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다 도망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27 절에서 “**너희가 다니엘을 버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체 사건의 다소 이상한 결말을 살펴보면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1 Now a certain young man followed Him, having a linen cloth thrown around *his* naked body. And the young men laid hold of him, 52 and he left the linen cloth and fled from them naked.

What a strange and mysterious little addition this is to the narrative of Jesus' arrest. Why we might wonder would this rather trivial incident be inserted at the end of this very sad and solemn account?

Interestingly only Mark includes it. This has led many to speculate that the young man in question was indeed John Mark himself. They argue that he is including this incident as a way of telling his readers that he was an eyewitness to these things, without specifically naming himself. However since the bible does not provide a definitive answer we cannot say with certainty. What can we say, or deduce from what scripture reveals?

Well, this young man had presumably been sleeping, or in bed when something aroused him. We know this because he was only wearing his undergarments and had wrapped himself in a linen cloth before hastily leaving the house. Is the linen cloth significant? Well it was a costly material for people in the first century. So it may indicate that he was a wealthy man, or that his family had wealth. I have also read that linen was the material used to wrap the dead. Is Mark wanting us to make this connection?

He had probably out of curiosity followed this crowd and then in the confusion wrongly been identified as being associated with the rebel leader Jesus. Someone had tried to grab a hold of him and been left holding the cloth as this young man slipped away naked, or scantily clad. What an odd little story this is. Why on earth is it in the bible?

It's in the bible because it happened. This incident actually occurred as the Lord Jesus was arrested. Think about it from this point of view. If the bible had been assembled by a committee I doubt they'd have included this account. It's rather like when film editors determine the final cut of a film. If a particular scene doesn't fit, or is deemed unnecessary it's cut. The committee would look at this account of a naked man fleeing and think it adds nothing significant to the story. It does not advance the story. Cut it. But God who is the author of scripture wants us to have this detail. Did it have a special significance or meaning to the original readers or hearers of the gospel that is lost to us? This may be the case. To us today it's just a curious and interesting account. Something for us to scratch our heads and puzzle over.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celebrate the birth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51 그리고 한 청년은 베 흩어붙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히자 52 두른 것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체포 이야기에 얼마나 이상하고 기이한 작은 첨가입니까? 이 매우 슬프고 엄숙한 이야기의 끝에 다소 사소한 이 사건이 삽입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마가만이 이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청년이 실제로 요한 마가 그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이 일의 목격자였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

해 이 사건을 포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밝힌 내용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 젊은이는 아마도 자고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그를 일어나도록 했을 때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속옷만 입고 몸을 리넨 천으로 감싸고 서둘러 집을 나섰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천이 리넨이라는 사실 이 중요할까요? 1 세기에 그것은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거나 그의 가족이 부유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리넨이 죽은 사람을 감싸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이런 연결을 맺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군중을 따라갔을 것이고 혼란 속에서 반역 지도자인 예수와 관련된 자로 오해받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를 잡으려고 했으나 천만 붙잡았고 이 젊은이는 발거벗거나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 도망갔습니다. 이 얼마나 해괴한 사소한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포함된 걸까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주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위원회에서 성경을 편집했다면 이 기록을 남겨놓았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영화 편집자가 최종적으로 영화의 장면들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정 장면이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잘라냅니다. 위원회는 발거벗은 남자가 도망치는 이야기를 보고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진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니 그걸 잘라버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부 사항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래 독자나 청중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은 단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긁적이며 고만해 볼 만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We must show love and not violence to our enemies

What is the natural response we feel when someone has hurt or wronged us? Our natural response is to try and exact revenge. We want them to suffer and feel as we did. We want to hurt them as they have hurt us.

We saw this highlighted in today's passage. Simon Peter didn't want anyone to arrest and take away his rabbi. So drawing his sword he was ready to exact violence on his enemies. This was not what Jesus wanted and it was not a part of God's plan. If God had desired for there to be a battle and for His Son to be protected from arrest He would have done so. He has legions of angels at His disposal. Do you think the small army of Romans and temple police would be any match for God's supernatural army? So Peter's error lay in being too impatient. In taking matters into his own hands and working by his own and not God's timetable. He failed to understand that love must precede justice, that Jesus must first solve the problem of sin before destroying it.

So what about us? Are we impatient like Peter? Are we too ready to take matters into our own hands? Are we thinking in terms of our timetable and not Gods?

We are not (I hope) chopping people's ears off but are we subjecting them to “violence” in other ways. Are we for example determining that someone is not a fit or worthy person to hear the gospel. Are we determining in our own hearts that someone is so bad, so irredeemable that it's a waste of our time to minister to them? I hope not. Are we saying or thinking that Muslims, Buddhists or militant atheists lie beyond God's grace and mercy? I hope not. Are we being hard hearted and refusing to forgive those who have wronged us? I hope not. Let us remember our Lord's words and love our enemies.

누군가가 상처를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복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이 강조됨을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누구든지 자기 립비를 체포하여 데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 적들에게 폭력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의 아들이 체포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천사 군단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인의 소규모 군대와 성전 경찰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군대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살수는 너무 성급한 데 있었습니다. 문제를 자신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랑이 정의보다 앞서야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참을성이 없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귀를 자르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악하니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무슬림, 불교도,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를 사랑합시다.

2 May we never abandon Christ

There can be no sadder or more dispiriting verse in all the bible than Mark chapter 14 verse 50. **Then they all forsook Him and fled.** The disciples had lived with Jesus for three event filled years. Think for a moment on all that they had seen Him do. Think on all the sermons and teachings they had heard. And yet here, when He most needed their loving support they fled.

They were more concerned about self-preservation than about doing what was right. It was right to stand alongside Jesus to face what He faced. Instead, they ran from the light to take refuge in the dark.

As I often say we are greatly blessed to live here in South Korea. Here we are free to gather and openly worship the Lord Jesus. How often we take this freedom for granted. We are not called upon to make the life and death decisions other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are called to make. In North Korea to openly stand alongside Jesus is potentially a death sentence. And yet still people in the North choose Jesus. They choose not to abandon Him. Their courage makes our own failures all the more stark.

How bold and brave are we? Not very I suspect. Did we stand up boldly for Christ this past week,

month or year? Did we stand alongside Him and take just in some small way the hate and abuse that was thrown at Him? Sadly we did not. We were more concerned about our own comfort and well-being.

But all is not lost. Peter denied Christ and was later restored. Jesus forgave His denial. He will equally forgive ours. If we have abandoned Him in any way His arms are now open wide. Come back to me He says. Let us go to Him now and vow not to abandon Him again.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 14 장 50 절보다 더 슬프고 실망스러운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

제자들은 사건으로 가득 찬 3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들었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랑의 자원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보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면하신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빛으로부터 도망쳐 어둠 속으로 파산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했듯이 우리는 이곳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모여 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전 세계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려야 하는 삶과 죽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용기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합니까? 별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주, 지난 달, 지난 해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일어섰습니까? 우리는 그분 옆에 서서 그분에게 가해진 증오와 학대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었습니까? 슬프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락함과 행복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도 똑같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분을 저버렸다면 그분의 팔은 이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분께 나아가 다시는 그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합시다.

